

뇌 속 시한폭탄...전조증상 없어 꾸준한 예방이 최선



건강 바로 알기 뇌동맥류

김재호

조선대병원 뇌신경외과 교수

#. 신모(54)씨는 한 달 전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경련 발작을 하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가족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돼 뇌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 결과, 뇌바닥수조에 광범위하게 피가 차 있는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상태였고, 3차 의료기관으로 후송돼 시행한 뇌혈관 조영술 결과 뇌의 좌우 혈관이 만나는 전교동맥에서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다. 뇌동맥류의 재파열을 막기 위해 동맥류 안에 미세도관을 삽입하여 가느다란 백금 코일로 동맥류 내부를 채워주는 코일 색전술을 응급으로 시행하고, 뇌압 조절을 위해 두개 내 도관삽입수술까지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환자는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약 3주간의 치료 끝에 신씨는 걸어서 퇴원할 수 있었다.

모든 뇌동맥류 파열 환자들이 이와 같은 좋은 예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헌상 통계에 따

10만명당 10~20명 출혈 발생
흡연·고혈압 등이 위험요인
위치·크기 따라 다양한 치료법
정기적인 추적 검사 통해 관리

르면 매년 인구 10만 명당 10~20명 꼴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다. 이중 적게는 25%, 많게는 50%까지 결국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존자 중에서도 거의 절반은 크고 작은 영구 장애를 겪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 치료하는 의료진 모두에게 가혹한 질병이라 할 수 있다.

◇뇌동맥류 증상과 치료=뇌동맥류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 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한다. 얇아진 혈관 벽은 파열의 위험성이 있으며, 파열될 경우 뇌혈관이 위치한 공간인 뇌지주막하 공간에 혈액이 퍼져나가게 되는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다.

뇌동맥류는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주변 뇌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을 일으키지만 대부분은 파열되기 전까지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최근에는 영상 검사 기법의 발달로 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겪기 전에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발견하여 치

료가 가능하다.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뇌압 상승으로 인한 극심한 두통, 오심, 구토 증상과 함께 심한 경우 의식 저하나 혼수 상태로 빠져 응급실로 오게 된다. 이러한 경우 치료가 잘 된다고 하여도 부수적인 합병증을 겪거나 후유증이 생기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동맥류의 치료는 클립 결찰술과 코일 색전술이 있다. 클립 결찰술은 두피와 두개골을 절개하여 미세현미경을 이용하여 동맥류의 입구를 수술용 클립으로 묶어 혈류를 차단하는 수술이다. 코일 색전술은 상대적으로 최근인 1990년대부터 많이 시행되어온 치료 방법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안에 가느다란 백금 코일을 채워 넣어 파열 또는 재파열을 방지하는 치료법이다. 수술적 클립 결찰술과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동맥류의 위치, 크기, 모양, 주변 혈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혈류전환 스텐트 삽입술, 혈류차단기 색전술 등의 새로운 기구와 시술의 발달로 동맥류 치료 방법의 선택권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원인 및 예방법=비파열성 동맥류가 진단되었을 경우 모든 경우에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다. 동맥류의 위치, 모양, 크기에 따라 위험하지 않은 동맥류로 판단되는 경우는 치료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반면에 파열의 위험성이 높은 동맥류로 판단되면 파열 전에 치료를 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큰 합병증을 남기



김재호 조선대병원 뇌신경외과 교수가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을 시행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뇌동맥류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흡연,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혈관건강과 관련된 인자들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위험인자를 갖고 있거나, 직계 가족 중 2명 이상이 뇌동맥류를 진단받았다면 뇌혈관 영상 검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원광대 김성철 교수 개발 '메카신' 알츠하이머 임상 국가과제 연구선정

연구비 16억원 3년간 진행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성철(사진) 교수가 개발한 퇴행성 뇌질환 후보 물질인 '메카신(Mecasin)'의 알츠하이머 임상연구가 보건복지부 과제에 선정됐다. 이 연구는 오는 2023년까지 3년동안 진행되는 융합기술개발사업으로서 총연구비는 한풍 제약기업의 대용자금을 포함해 총 16억원 가

량이 투입된다. 김 교수가 개발한 '메카신(Mecasin)'은 작약, 감초, 정제부자, 강황, 천마, 단삼, 원지 등 9가지 한약재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정제부자는 부자에서 아코니틴을 제거하는 (유)한풍제약의 독자적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한약제제로서 퇴행성 뇌질환 치료용 조성물로서 국내, PCT 및 미국 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미 메카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파



괴적이고 공격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퇴행성 뇌질환중에서 진행성 운동신경 질환인 루게릭병에 대해서 메카신과 세계 표준치료제인 리루졸(Riluzole)의 병용치로 임상 2상 연구를 진행해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했고, 이를 다시 다빈도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병으로 적용증을 확대하는 2상 임상시험에 도전하게 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민정준·강세령 교수 논문 BRIC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소개

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 민정준·강세령 교수의 논문이 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소개됐다. 민 교수팀의 '면역치료를 위한 약물전달체로서 박테리아와 박테리아 유래물질'이라는 논문은 약물전달기술 분야의 최고 학술지인 'Advanced Drug Delivery Reviews' (영향력지수 15.470) 최근호에 게재됐다. 이는 암, 감염질환, 대사성질환, 유전병, 혈관질환, 소화기질환 등 면역치료를 사용되는 박테리아 또는 박테리아에서 유래된 물질들을 총 정리한 리뷰논문으로, 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 유수용 교수와 응웬 딘-후이(Nguyen Dinh-Huy) 박사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이 논문은 암을 포함한 각종 질환에 따른 치료용 균주의 특성, 생물학적 합성방법, 기존의 전임상 및 임상연구의 결과들을 종합 정리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민정준 교수 강세령 교수

보라안과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심사·현지조사·심의 통해 선정

보라안과병원이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부여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4기 '2차년도(2022~2024년)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4기 전문병원 지정부터는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병원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명칭 앞에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7월 12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아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인증 등 7개 지정기준의 준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총족된 10개 병원을 제4기 2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했고, 그중 보라안과병원이 포함됐다. 전문병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3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 보라안과병원 조희진 원장은 "안과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지역민의 눈 건강을 위해 더욱 매진하고, 과잉 진료 없이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강화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핵의학과, N-13 암모니아 심장 PET 100례 촬영

전남대병원이 'N-13 암모니아 심장 PET'를 도입한 지 3개월 만에 영상검사 100례를 달성했다. 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사이클로트론실은 지난해 9월 N-13 암모니아 심장 PET 검사를 처음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촬영 100례를 돌파했다. 'N-13 암모니아'는 전남대병원 사이클로트론실이 5번째로 생산한 방사성의약품이다. 조제실제제

방사성의약품으로는 'C-11 아세트산'에 이어 2번째로 임상 진료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앞서 사이클로트론실은 지난 2019년 11월 식약처로부터 GMP(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 허가를 취득한 후 첫 방사성의약품인 'F-18 FDG'의 생산과 공급을 시작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